

솜 수파파리냐 Som Supaparinya

Long: MONUMENTS

모 넘 엔츠

Jim Thompson Art Center

짐톰슨아트센터

Curated by Gridthiya Gawew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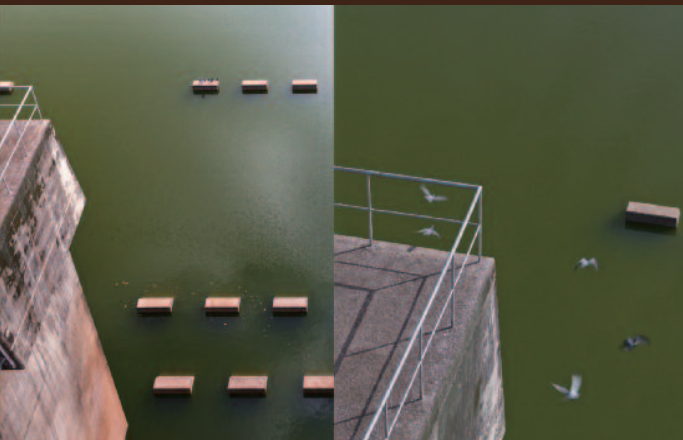


태국 치앙마이 기반으로 활동하는 솜 수파파리냐(Som Supaparinya) 작가의 개인 전 <모 넘 엔츠(More Nam En Chue)>가 짐톰슨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그리티아 거윙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스페인 한네프켄스재단-동남아시아 비디오 아트 제작 지원금 2024 '딘 큐 레(Dinh Q. Lê) 추모'의 일환으로, 짐톰슨아트센터(Jim Thompson Art Center), 베트남 아웃포스트 아트 오가니제이션(Outpost Art Organisation), 이탈리아 무세이온(Museion), 일본 히로시마시립현대미술관(Hiroshima C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덴마크 쿠프텐보르그미술관(Kunsthal Charlottenborg), 중국 록번드미술관(Rockbund Art Museum)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솜 수파파리냐(Som Supaparinya) 작가는 <모 넘 엔츠> 연작을 통해 태국의 국가적 상징인 '댐'이 어떻게 국가 이데올로기와 결합하고, 그 이면에서 어떤 갈등을 빚어왔는지 날카롭게 추적해왔다.

작가가 주목한 박문댐(Pak Mun Dam)과 푸미폰댐(Bhumibol Dam)은 태국 현대사에서 각각 '국가 발전의 빛'과 '그림자'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다. 두 댐은 태국인들에게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작가는 댐 뒤에 숨겨진 수위 데이터, 강제 이주된 사람들의 기록, 사라진 생태계의 흔적을 예술로 시각화한다. 이는 국가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화려한 외관' 너머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이다.

작가 솜 수파파리냐
Som Supaparinya
이미지제공 짐톰슨아트센터
Jim Thompson Art Center



포스트 선전 시대와 모 넘 엔츠

숨 수파파린야는 역사, 환경,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얽힘을 탐구하는 장기적 연구 기반 예술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는 이번 신작 <모 넘 엔츠> (2025)에서 자연 파괴가 단순히 '진보'의 부산물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담론적 힘의 직접적 결과임을 조명한다. MO NUM EN TS라고 분절하여 표기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기념비나 유적으로 번역하는 'Monument'라는 단어를 해체하여 그 속에 숨겨진 다층적인 의미와 권력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언어적 유희이다. 수파파린야가 새로 제작된 영상 작품에서는 부미볼 댐과 팍문 댐과 같은 산업시설이 여전히 '진보의 상징' 인지 질문한다. 여기에는 자유 세계와 사회주의권 양측이 퍼뜨린 선전이 포함되며 양측 모두 지역 전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미국과 태국의 선전이 지형과 천연자원을 표면적으로뿐만 아니라 토지 및 인구 관리 체계의 깊은 곳까지 어떻게 재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개발은 현대화와 복지로 가는 길로 홍보되었으며, 태국을 '자유 세계'와 일치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미스 유니버스타이틀과 쌀 수출 순위부터 푸미폰 댐 Bhumibol Dam 같은 기념비적 댐, 태국 실크 짐 톰슨 (Jim Thompson)의 세계적 명성, 미국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은 태국 북동부 음악 몰람 (Molam)의 혼성화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성과와 문화적 상징을 통해 이를 찬양했다. 냉전 시기 도입된 최첨단 기술 중 하나는 무기뿐만 아니라 미디어—라디오와 텔레비전—였다. 미국정보처 (USIS)는 진보 서사와 자유 세계 (Free World)의 현대화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태국에서 영화, 잡지, 서적 등 방대한 미디어 자료를 제작했다. 이 자료들은 인프라, 교육, 의료를 발전의 상징으로 묘사하며 태국과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상을 본받도록 촉구했다.

Still from Mo num en ts video, Courtesy of the artist

MO NUM EN TS 모 넘 엔츠

Video Installation: 4-channel video synchronization, color, 5.1 audio system, and photographs

Supported by the Han Neffkens Foundation · Southeast Asian Video Art Production Grant 2024 In memory of Dinh Q. Lê, and in collaboration with Jim Thompson Art Center; Outpost Art Organisation, Vietnam; Museion, Italy; Hiroshima C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Japan; Kunsthal Charlottenborg, Denmark; and Rockbund Art Museum, China

Sound Collaborator: Robert "Bob" Ostertag

Sound Mixer and Designer: Akritchalerm Kalayanamitr

모 넘 엔츠에서 수파파린야(Supaparinya)는 이러한 역사적 미디어 유물들을 태국의 현재 사회정치적 풍경, 즉 그녀가 '포스트 선전 시대(Post-propaganda Era)'라 명명한 것과 병치시킨다. 작가가 언급하는 '포스트 선전 시대'는 이러한 두 댐의 이미지가 충돌하고 해체되는 지점을 말한다. 과거 국가가 주도했던 '댐은 축복이다'라는 일방적인 선전(Propaganda)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유산이 어떻게 정부 담론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들이 실제로는 외국의 영향과 전신 외교의 논리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한다.

1964년 완공된 푸미폰댐(Bhumibol Dam)은 당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전력 생산과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태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역할로 태국 근대화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태국인들에게는 국가의 자부심이자 단순한 기반 시설 이상의 의미이다.

서거한 푸미폰 아두냐뎛(라마 9세) 국왕의 이름을 딴 이 댐은, 국민을 사랑하고 가뭄과 홍수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자비로운 군주'의 국왕의 권위와 헌신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선전(Propaganda)'의 핵심 도구였다. 이런 의미로 댐은 국왕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장소이며,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 신성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한편 메콩강의 지류인 문강에 건설된 박문댐은 태국 사회에 큰 균열과 성찰을 안겨주었다. 1994년 완공된 박문댐은 수많은 어종의 이동경로를 차단한 셈이다. 이는 강에 의존해 살아가던 수천 가구의 어민들에게 경제적·문화적 사형선고와 같았다. 수십 년간 이어진 어민들의 투쟁은 '국가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소외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사회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런 점 때문에 박문댐은 저항의 발상지로 태국 환경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불린다.

'댐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개



발정체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의 연구는 박문댐과 푸미폰댐 같은 주요 댐들이 최소한의 전력 생산과 심각한 생태계 파괴에도 불구하고 왜 보존되는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노후화된 댐들이 해체된 반면, 태국에서는 이념의 기념비로 남아있다. 실용성 때문이 아니라 발전의 이정표이자 건드릴 수 없는 국가서사라는 상징적 지위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다.

이 댐은 환경비용과 전력 생산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기념비로 존재한다. 작가는 작품 안에서 미국정보처(USIS)가 제작한 미디어 자료를 통해 냉전 선전의 문화적 차원을 탐구해 나간다. 이러한 기록 영상과 음향을 태국의 현대적 풍경과 병치함으로써 작가는 이른바 ‘포스트 선전 시대’를 소환한다. 일상 속에서 냉전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지속되는지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Paradise of the Blind 눈먼 자들의 낙원

이번 신작과 함께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검열 문제를 다루는 그녀의 지속적인 프로젝트인 ‘금지 도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전 설치 작품 『Paradise of the Blind 눈먼 자들의 낙원』(2016/2025)의 재구성 버전이 함께 전시된다.

작가는 금지된 책과 ‘금지되지 않은’ 책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통제 메커니즘이 금지뿐만 아니라 선택적 허가를 통해서도 작

Still from Mo num en ts video, Courtesy of the artist.

MO NUM EN TS 모 넘 엔 츠

Video Installation: 4-channel video synchronization, color, 5.1 audio system, and photographs

Supported by the Han Nefkens Foundation - Southeast Asian Video Art Production Grant 2024 In memory of Dinh Q. Lê, and in collaboration with Jim Thompson Art Center; Outpost Art Organisation, Vietnam; Museion, Italy; Hiroshima C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Japan; Kunsthall Charlottenborg, Denmark; and Rockbund Art Museum, China.

Sound Collaborator: Robert "Bob" Ostertag

Sound Mixer and Designer: Akritchalern Kalayanamitr

동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자유라는 명목 아래 권력이 지식과 대중의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관객들이 역사 속 권력, 지식, 그리고 보이지 않음의 층위들, 특히 이념, 기억, 자연 경관이 어떻게 서로 얽혀 현재까지 계속해서 메아리치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베트남의 금지된 소설에서 이름을 따온 이 전시 부분은 수파파리아의 지속적인 ‘금지 도서 시리즈’를 확장한다. 2025년 개정판에서 그녀는 검열의 이념적 이중 기준을 드러내기 위해 금지된 책과 금지되지 않은 책을 함께 선보인다. 이번 새 버전에서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금지 도서와 함께, 냉전 시기 공산주의 이념이 억압되던 태국에서 한때 금지되었던 초판본 및 출판물들을 포함시켰다. 그녀는 이를 자유 세계와 미국과의 동맹을 찬양했던 《세리팍》(Seri Phap)《เสรีภาพ》잡지와 같은 국가 승인 매체와 대비시킨다.

작가는 《세리팍》잡지에 실린 1960년대의 화려한 아카이브 사진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오늘날의 댐 주변 풍경을 나란히 배치한다.《세리팍》속 댐은 거대한 콘크리트 미학을 뿜내며 문명을 밝히는 빛으로 묘사되며 흑백 혹은 초기 천연색 사진 속의 댐은 깨끗하고 웅장하다. 작가는 이를 현재의 녹조 낚시 물, 가뭄으로 드러난 바닥, 활기를 잃은 어촌 마을의 영상/사진과 대조시킨다. ‘약속된 미래(잡지)’가 ‘도착한 현재(작품)’에서 얼마나 참혹하게 어긋났는지를 시각적으로 폭로하는 방식이다.

《세리팍》은 미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투시도가 강조된 구도나 역동적인 노동자의 모습을 주로 사용했는데 작가는 이러한 영웅적 구도를 의도적으로 비틀거나, 잡지 속에서 찬양했던 발전의 수치들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데이터(강제 이주민 수, 멸종된 어종 리스트 등)를 잡지 형식 위에 덧입혔다. 이는 자유(세리팍)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생태적·사회적 억압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세리팍》(เสรีภาพ, Seri Phap) 잡지의 시대, 신화의 해체

작가가 다루는 '포스트 선전'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세리팍》(เสรีภาพ, Seri Phap) 잡지는 매우 중요한 사료로 작동한다. '세리팍'은 태국어로 '자유(Freedom)'를 뜻한다. 미국 공보원(USIS,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에서 발행한 이 잡지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태국 전역에 배포되었다. 이 잡지는 냉전 시기 태국 내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전파했던 가장 강력한 프로파간다 도구 중 하나였다.

《세리팍》(Seri Phap)은 독립된 하나의 잡지가 아니라, 미국 공보원(USIS)이 아시아 전역에서 전개했던 '자유 세계(Free Worl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행된 현지화 버전 중 하나였다. 미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지역생산센터(Regional Production Center, RPC)를 두고, 아시아 각국에 맞춘 다양한 버전의 《프리 월드》잡지를 발행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Free World》가 배포되었다. 태국의 《세리팍》 역시 이 《Free World》의 태국판 명칭이다. 한국은 《자유의 세계》와 《희망》이라는 잡지가 발간되었는데 이중 《자유의 세계》는 태국의 《세리팍》과 궤를 같이하는 잡지로, 미국의 원조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한국의 재건 모습을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태국인들에게 '미국은 선(善)이며, 공산주의는 악(惡)'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되었는데 주로 풍요로운 미국 가정의 모습, 최신 가전제품, 화려한 도시 풍경을 고화질 사진으로 보여주며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을 자극했다. 당시 태국 대중에게 이 잡지는 거의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고급 컬러 인쇄물이었기에 그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렇게 집요하게 미국식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는 한편 미국 대통령과 태국 국왕(푸미폰 아둔나뎃)이 만나는 장면이나, 미군이 태국의 근대화를 돕는 모습을 비중 있게 다루어 양국의 혈맹 관계를 정당화했다. 특히 작가가 주목한 '댐 건설' 같은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는 '공산주의로부터 태국을 지키고 근대화를 이끄는 승리'로 묘사했다. 《세리팍》은 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이나 쫓겨난 어민들의 고통은 철저히 삭제했다.

작가는 전시를 통해 이 잡지가 삭제했던 '그림자'를 다시 복원해내며 포스트 선전 시대를 논하며 《세리팍》잡지가 구축했던 '아름답고 풍요로운 근대화의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한다. 작가는 이 잡지가 만들어낸 '가공된 진실'이 어떻게 실제 태국의 자연과 민중의 삶을 억압했는지 질문한다. 《세리팍》은 태국인들에게 '미국의 기술과 자금으로 건설된 댐 = 국가의 안보와 번영'이라는 공식을 주입한 텍스트였던 셈이다.



Installation view, 2016. Courtesy of the artists.



Installation view, 2016, Courtesy of the artists.

Paradise of the Blind, 2016/2025

Installation: 360 bullet shells size 5.56 x 45 mm, copper wires No. 38 banned/restricted books, stripcut photocopy paper shreds (Greenleaf and white papers), and a paper shredded machine Private Collection

The edition in 2016 was commissioned by The Reading Room, Bangkok, 2016. Supported by the Heinrich Boell Foundation, Southeast Asia. The revision edition in 2025 was supported by James H.W. Thompson Foundation and the Jim Thompson Art Center

작가는 《세리팍》 잡지가 찬양했던 ‘Monument(땀)’을 ‘MO-NUM-EN-TS’로 분해함으로써, 독재적 선전이 부여한 신성함을 제거하고 그 실체를 낱알이 해부하고 있다. 수파파리냐는 자신의 초기 작품들이 금지된 서적을 다뤘던 반면, 이번에는 검열이 금지뿐만 아니라 선택적 허가를 통해서도 작동함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으로 ‘금지되지 않은’ 서적들을 선보인다고 지적한다. 종종 무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금지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라는 명목 아래 이념적 서사를 정상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리팍》은 국가에 의해 권장되고 대량 배포된 허용된 책이다. 작가는 이를 검열당하고 금지된 서적들과 한 공간에 뒹군으로써 무엇을 금지하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읽게 하는가 또한 강력한 통제 기제임을 보여준다. 잡지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비판적 사고를 차단하는 부드러운 검열이었음을 말한다.

작가가 《세리팍》을 소환하는 이유는, 이 잡지가 단순히 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냉전기 미국이 아시아 전역에 구축하고자 했던 ‘근대화의 환상’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태국의 땀이나 한국의 공장, 베트남의 도로 건설 현장은 모두 《Free World》 시리즈 안에서 동일한 ‘자유 세계의 승리’로 묘사되었다. 잡지에서 보여준 ‘편집된 번영’에 질문을 던지며, 국가와 외세에 의해 지워진 현지인들의 실제 삶과 생태계의 파괴(박문땀의 사례 등)를 대조시킨다. 《세리팍》이 보여준 ‘빛’이 아시아 공통의 선전도구였다면, ‘빛’에 가려진 아시아 각지의 ‘그림자’는 공통된 기억이다.

글 김효정 콘텐츠큐레이터, 이미지 제공 짐통슨아트센터

숨 수파파리냐 Som Supaparinya (b. 1982, 출생)

태국 람퐁에서 성장했으며, 현재 치앙마이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이다.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졸업 후 독일 라이프치히 그래픽 및 북아트 대학(Hochschule für Grafik und Buchkunst Leipzig)에서 미디어 아트를 공부했다. 그녀는 해당 지역에서 멀티채널(1995년 4채널) 및 동기화 비디오 설치(2012년) 분야의 선구자이다. 1995년 카세트 녹음기, 핸드캠 비디오 8, VHS 카메라로 첫 영상 및 사운드 작품을 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은 설치, 창작 및 발견된 오브제, 정지 및 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주로 다큐멘터리적·실험적 접근으로 제작되었다. 작품들은 정치적, 역사적, 문학적 렌즈를 통해 인간 활동이 다른 인간과 풍경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변화하는 풍경(다양한 수단을 통해)이 그녀의 실천을 이끌었다. 그녀의 작품은 국수 문화, 강 풍경의 변화, 도시 풍경, 경로, 전력 생산, 저항 현장, 전쟁, 금지된 책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한 네프켄스 재단 - 동남아시아 비디오 아트 제작지원금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아트 분야의 현대적 예술 창작을 증진시키는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지원금은 비디오 아트 작품 제작을 지원한다. 이 예술 분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영화, 다큐멘터리 또는 퍼포먼스 기록물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해당 지역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으나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전시 기회를 얻지 못한 예술가들을 평가하여 그들의 경력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심사위원단에 공식 제출된 예술가들의 초기 선정은 보조금 파트너 기관들이 추천한 10명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미술 평론가, 큐레이터 및 예술가들이 구성했다. 스카우팅 과정 자체는 선정된 예술가의 인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덜 알려진 비디오 아트 작품을 발굴함으로써, 그 자체로도 이 분야를 촉진한다.

Han Nefkens Foundation

한 네프켄스 재단은 네덜란드 작가이자 후원자인 한 네프켄스가 2009년 바르셀로나에 설립한 사립 비영리 기관이다. 비디오 아트 제작에 주력하며, 세계 각지의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저명한 국제 예술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단의 설립 이념은 처음부터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현대 창작물을 초기 기획 단계부터 최종 발표까지 총괄하고 지원하는 제작 허브이다. 비디오 아티스트들의 경력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이 재단의 주요 활동은 국제적 차원의 상과 지원금을 통해 신작을 의뢰하는 것이다. 재단의 독특한 운영 방식은 예술가들이 신작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전 세계 수많은 예술 기관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한다.

About Som Supaparinya

Raised in Lamphun, lives and works in Chiang Mai, Thailand. Studied Fine Arts at Chiang Mai University. After graduation, she went to study Media Arts at Hochschule für Grafik und Buchkunst Leipzig, Germany. She is a pioneer in multichannel (4-ch in 1995) and synchronization video installation (2012) in her region. She created her first video and sound arts in 1995 with cassette recorders, Handycam Video 8, and VHS cameras. However, her works encompass a wide variety of mediums such as installation, created and found objects, still and moving images, which have been produced mainly with a documentarian and experimental approach. The works focus on the impact of human activities on other humans and landscape through political, historical, and literary lenses. The changing landscape (by various means) motivated her practice. Her works are stories on noodle cultures, the change of riverscapes, cityscapes, routes, electricity generation, resistance sites, wars, and banned books.

Gridthiya Gaweewong

Gridthiya Gaweewong (b. 1964, Chiang Rai, Thailand) holds a Master of Arts in Art Administration and Policy from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a Doctorate in Fine and Applied Arts from Chulalongkorn University. She co-founded Project 304, an alternative art space in Bangkok, from 1996 to 2002, and has curated numerous exhibitions addressing social transformation since the Cold War. Notable projects include "Under Construction" at Tokyo Opera City Gallery and "Politics of Fun" in Berlin, collaborating with various regional curators. Gridthiya curated Apichatpong Weerasethakul's "The Serenity of Madness," which toured internationally, and participated in the 12th Gwangju Biennale's curatorial team in 2018. In 2023, she co-directed the "Open World" international exhibition, at the 3rd Thailand Biennale. Her recent projects including, "I understand everything," a retrospective of Almagul Menlibayeva, Almaty Museum of Art, Almaty, Kazakhstan and "Living with Elastic Time", Invited Country Pavilion, Cheongju Craft Biennale, South Korea in 2025. A 2018 fellow at the Center for Curatorial Leadership at MoMA, she has served on the acqui-

sition committee for the Singapore Art Museum since 2020. Gridthiya received the Chevalier de l'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in 2023 and the Audrey Irmas Award for Curatorial Excellence in 2025, and she currently works as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Jim Thompson Art Center, Bangkok.

Han Nefkens Foundation

The Han Nefkens Foundation is a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set up in Barcelona in 2009 by Dutch writer and patron, Han Nefkens. It focuses on the production of video art, with the aim of connecting people through art across the world, collaborating with renowned international art institutions. The Foundation's founding values have defined it from the beginning as an innovative and forward-thinking model: a production hub that oversees and promotes contemporary creation from the very first moments until the final presentation. Positioned as a platform for video artists to advance their careers, its main activity is to commission new works through its awards and grants on an international level. The unique way in which the foundation operates allows for artists not only to produce new work but also to have that work shown at numerous art institutions world-wide.

Han Nefkens Foundation-Southeast Asian Video Art Production

aims to be a tool for increasing contemporary artistic production in the video art field and is directed at artists living in Southeast Asia. The Grant involves the production of a video art work. Any type of film or documentary or performance documentation that does not belong to this artistic discipline is excluded. In order to consolidate the candidates' career, the Grant appraises artists living in that region who have established a solid trajectory but have not been given a major opportunity to exhibit extensively worldwide. The initial selection of artists formally presented to the jury was put together by ten internationally recognised art critics, curators and artists who were in turn nominated by the partner institutions of the grant. The scouting process itself expands the selected artist's network of contacts and discovers lesser-known video art works and thus, in itself, also promotes this discipline.